

멕시코, 기름 도둑과의 전쟁 국민들은 기름 구입 전쟁



▲ 멕시코시티의 한 주유소에 주유하려는 차량이 줄지어 서 있다.

멕시코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정부가 벌이고 있는 “기름도둑과의 전쟁”에 협조해달라고 호소한 가운데 휘발유 품귀로 일부 주유소에서는 1인당 10~20ℓ 씩 판매량까지 제한하면서 주유소마다 휘발유를 사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석유 절도범들이 국영 석유 기업 페멕스와 결탁해 송유관에 구멍을 내거나 유통센터 저유소에서 몰래 빼돌려지는 석유 규모가 연간 3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자 멕시코 정부는 송유관 운영을 중단하고 유조차로 운송을 대체했다. 하지만 유조트럭 부족으로 휘발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현실이다.

오브라도르는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를 도와달라고 호소한다. 우리가 범죄자들에게 패배하지 않도록 도와달라. 우리가 힘을 합치면 결국에는 석유도둑들을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초조한 멕시코 국민들은 휘발유를 구하느라 분주하며 소셜미디어에는 연료가 떨어졌다고 써붙인 주유소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국민들은 이번 휘발유 부족 사태를 지난 1970년대 빵과 우유와 같은 생필품이 부족했던 때와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멕시코 보안 분석전문가 알레한드로 오페는 “정신이 똑바른 사람이라면 이런 싸움에 반대할 수는 없다. 문제는 정부 조치의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과 방법이다.” 라면서 석유운송방식의 급격한 변화는 마치 고속도로 강도를 잡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

남극 빙하 해빙 속도, 40년 동안 6배 빨라져

지구 온난화로 인해 남극 빙하가 40년 전에 비해 여섯배 빠른 속도로 녹고 있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뉴시스’가 CNN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의하면 1979년 이후 남극 대륙의 빙하를 살펴온 에릭 리노 어바인 캘리포니아대 교수 연구진은 남극 빙하의 붕괴뿐만 아니라 그 속도 및 지역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미 과학아카데미 회보에 실린 이번 연구 보고서에는 빙하가 녹는 속도가 일관되지 않고 10년마다 연속적으로 더 빨라진다는 내용이 담겼다.

남극 빙하는 1979~1990년 매년 40Gt(기가톤)이 사라졌지만 2009~2017년에는 252Gt으로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극 빙하 해빙 속도가 빨라지면서 1979년과 2017년 사이 전세계 해수면은 1.4cm 상승했다. 문제는 지구온난화에도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던 동남극 대륙의 빙하가 점차 녹고 있는 것으로 연구조사 결과 나타났다는 것이다. 동남극 지역에 있는 대륙 빙하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지구상에 있는 담수의 절반 가량을 함유하



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현 속도로 지속되면 2100년에는 해수면이 1.8m까지 오르면서 지구 곳곳에서 가뭄과 폭풍 등 자연 재해들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과학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남극 대륙의 대부분은 빙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녹을 경우 평균 해수면이 57.2m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수 온도 상승은 향후 해빙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인류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해수면은 수세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캐나다 관계 악화일로 상호 여행주의보 발령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명완저우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되는 ‘화웨이 사태’ 후 악화일로를 걷던 두 나라가 상호 ‘여행주의보’를 발령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캐나다 외교부는 14일 자국민 로버트 로이드 셸렌베르크가 중국에서 마약 밀매죄로 사형선고를 받아 여행주의보를 내린 바 있다.

중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명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캐나다에서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중국이 캐나다를 압박하려 하는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자 다음날인 15일 중국 외교부는 자국민에게 캐나다 방문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외교부는 “최근 중국 공민이 제3국의 요구에 따라 캐나다 사법 당국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외교부와 캐나다 주재 대사관은 캐나다 여행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평가 및 판단했으며 (중국 국민은) 가까운 시일 내에는 캐나다 여행을 삼가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긴급 상황에서는 즉시 캐나다 주재 중국 영사관에 연락해 협조를 구하라.”면서 대사관과 각 지역 영사관의 긴급전화번호를 공지했다.

한편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 관계자들에게 미국과 그 동맹국 출장을 피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당국이 일부 국영기업에 미국과 그 동맹국 출장을 가급적 가지 말고, 불가피한 경우 각별한 장비 보안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또 약 100개의 국영기업을 관할하는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는 최근 일부 기업에 임직원이 출장을 간다면 해외용으로 회사가 지급한 안전한 노트북만 가져가도록 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www.isemusa.com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